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2.(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 이슬기 실장(051-797-4768), 김예림 전문연구원(051-797-4797)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중 해양관광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제주서 '2026 한·중 해양협력포럼' 개최…
해양문화·생태·크루즈관광 분야 협력과제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은 11월 12일(목) 중국 산동사회과학원(SDASS)과 공동으로 「2026 한·중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해양관광 분야 협력과제와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의 해양관광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동사회과학원을 비롯해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경대학교 등 양국 관계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양문화관광 △해양생태관광 △크루즈관광 등 3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해양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양국이 공유하는 해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이 논의됐다. 장보고 유적과 해양설화 등 공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해상교통 연계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안됐으며, 해상실크로드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문화 테마 항로 개발, 청소년 교류 등도 주요 협력과제로 제시됐다.

해양생태관광 분야에서는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황해 생태자원 공동 모니터링과 철새·갯벌 생태교육 등 환경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광 수용력과 안전관리 분야의 공동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크루즈관광 분야에서는 동북아 크루즈벨트 구축을 위한 양국 항만 및 항로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관광 데이터 표준화, 문화 테마 크루즈 콘텐츠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이 주요 협력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쉬광핑(徐光平) 산동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분야별 협력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해양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산둥성과 제주를 연계한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광 통계와 정책정보 공유,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정례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한·중 해양협력포럼은 2011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 기반이자,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김예림 전문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elimkim@kmi.re.kr)

<붙임> 2026년 한·중 해양협력포럼 현장사진



